



권중오 라파엘
SBS 보도국 스포츠부장

| 환난이 왜 자랑일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지난 9일에 개막해 10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4년마다 올림픽 개최지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은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참가해 인간승리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장애인들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8년에는 장애인 수영 선수 2명이 패럴림픽이 아니라 최고 선수들이 겨루는 서울 올림픽 개인혼영 400m에 나란히 출전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인혼영은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등 4가지를 한 선수가 100m씩 차례로 하는 종목으로 수영의 철인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21살인 헝가리의 토마시 다르니와 19살인 미국의 데이브 워튼. 다르니는 15살 때 눈싸움 도중에 친구가 던진 눈덩이에 왼쪽 눈을 맞아 크게 다쳤는데 헝가리에서는 그의 눈을 살릴 뽀족할 방법이 없어 서독에서 7차례나 망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신히 완전 실명은 면했지만 오른쪽 눈에 비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워튼은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코치가 귀엣말로 해야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다르니가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워튼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다르니는 200m도 석권했고 4년 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역시 2개 종목 금메달을

차지해 올림픽 2회 연속 2관왕이란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역경을 매일 1만 2천m를 훈련하는 초인적인 의지로 극복했습니다. 1만 2천m는 50m 수영장을 120번 왕복하는 거리로 그는 6년 동안 지구 반 바퀴를 헤엄쳤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환난을 어떻게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지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한 개인에게 매우 큰 환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시련에 그냥 주저앉으면 환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다르니와 워튼처럼 인내하고 더욱 정진하면 바오로의 말처럼 희망이 싹트고 자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인내하고 수양하면 새 희망이 올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은 결과적으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리상식

주일미사를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신할 수 있다면데요?

‘부득이한 경우(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 참례를 못 했을 때는 묵주기도 5단을 바치거나, 그 주일의 독서와 복음 봉독, 혹은 선행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 이 지침에 덧붙여 평일 미사에 참례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일미사에 빠졌다는 죄책감으로 자칫 냉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글 「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